

2023년 10월 1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6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0월]



복음화 지향 : 시노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법을 따라 공정과 정의의 길을 걸으라고 촉구합니다. 죄인에게도 회개를 통하여 이러한 길이 열려 있으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는 오히려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곳곳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청합시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8,25-28

<악인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화답송 시편 25(24),4-5.6-7.8-9 (◎ 6ㄴ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1-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8-32

<말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의 계명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는 동의하면서도 실행하는 것을 교묘히 회피하는 위선은 신앙생활의 큰 병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니지 못할 때 깊어지는 위선의 병을 우리는 고치기는커녕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며 하느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열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위선적 태도를 고쳐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진만 안젤로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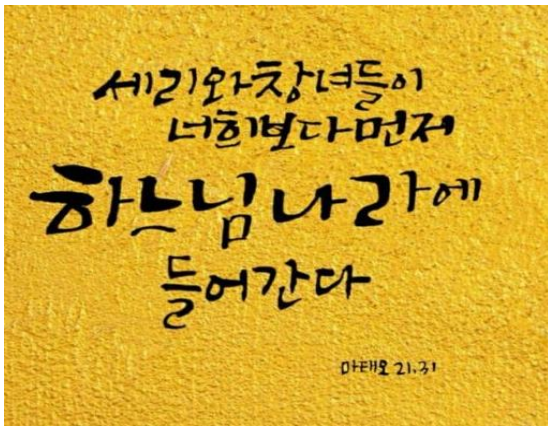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권한에 의문을 품으면서 세례자 요한을 거부하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21,23-27 참조) 상대로 비유를 들어 그들과 벌이는 논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비유 속 만아들은 특권적 지위에서 그에 따르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지도력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른 아들은 이런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은 만아들의 모습과 반대되며 비난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제 1 독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신 포도 속담을(에제 18,2 참조) 반박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공평한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르면 의인이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키엘 예언자는 구원을 얻는 데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행적이 더 중요하다는 신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만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의인'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마태오 21, 31

| 연중 제 26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바리사이와 세리', 제임스 티소 작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마태 21,32).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묵주 기도 성월 (10월) 유래와 의미

교회는 해마다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 기도 성월은 10월 7일의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현재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이 로마를 침공하였을 때, 성 비오 5세 교황은 그리스도교 국가들과 연합군을 편성해 대항하였습니다. 1571년 10월 7일 연합군은 묵주 기도를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 그리스의 레판토 항구 앞바다에서 벌인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 비오 5세 교황은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묵주 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간구로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덕분이라 여기고, 이를 기억하고자 '승리의 성모 축일'을 제정하였고, 훗날 1960년 성 요한 23세 교황이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묵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이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묵주 기도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묵주 기도 성월에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신실하게 묵상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수호천사 기념일 (10월 2일) 전례적 유래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임명된 천사를 가진다." 이 가르침은 성서와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5,19;12,7-15), 히브리서(1,14), 복음서(마태 18,10)는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그 증인들입니다. 수호천사에 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의무적으로 정의된 가르침은 아닙니다. 천사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의 기도 유산과 신심에서 나온 가르침이므로,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이 가르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교회의 축일표 안에서 수호천사 기념일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 레오 10세 교황은 스페인의 로데즈 주교가 정한 수호천사 축일을 인준했지만, 비오 5세 교황은 미사경본(1570년)에서도, 성무일도 안에서도 수호천사 축일을 명시하지 않았습니. 그레고리오 8세 교황은 1582년 발렌시아 교구에 수호천사 축일을 허락하였고, 바오로 5세 교황은 1608년 전 교회에 수호천사 축일을 지내도록 명했습니다. 또 클레멘스 9세 교황은 1667년 페르디난도 2세 황제의 청원에 따라 그의 제국에 9월 첫 주일에 수호천사 축일을 지내도록 명했으며, 클레멘스 10세 교황은 다른 교회들에 10월 2일에 이 수호천사 축일을 고정시켰습니. 그리고 비오 10세 교황에 이르러서야 10월 2일을 일반적인 축일로 정하였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후의 전례력 개정에서는 이 날을 의무 기념일로 하여 존속시켰습니. [수호천사 기념일 참고자료] <https://url.kr/4f527d>

2023년 창조시기 (9월 1일 ~ 10월 4일)

일	월	화	수
10/1 238항	10/2 241항	10/3 244항	10/4 245항
세상을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관상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성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 따라 부르기	모든 피조물의 모후! 성모님 언제 어디서든 생태사도직 역할을 되새기고 당당하게 수행하기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천천히 바치기	하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옆에 두고 읽고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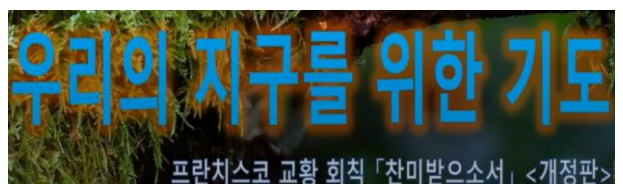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
2023 창조시기

[이미지 클릭] 피조물 보호 & 찬미 받으소서 영상목록

[2023년 창조시기 10월 첫째 주 생태달력]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적 회심'을 연재 중입니다. 이번주는 조현철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생태적 회심,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생태론적 세계관으로'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기고문 링크] <https://tinyurl.com/3enr5ajz>



[이미지 클릭]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영상



| 연중 제 26 주일 주간실천 |

GREEN WORLD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8**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15

출발 전 주행 경로와 시간을 파악하기
 → 32,62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중주
21 강 애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54 강]
예언자들의 예언자, 엘리야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열왕기 5 부 | 1 열왕 17-18 장

떼제(taize) 기도

5 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5 분 기도 -1]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마태 6,25-27; 31-34)

□ **미사 참례자수**

9 월 17 일	성인 60 아이 17	9 월 24 일	성인 68 아이 35
----------	-------------	----------	-------------

□ **우리들의 정성 (9 월 23 일(토)~29 일(금))**

권요순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서진원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재희	이지영	장일한	장호훈	전인철	조성민	조성희
교무금 \$1,860 (16 가정) / 봉헌금 \$505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10 월 1 일 연중 제 26 주일	10 월 8 일 연중 제 27 주일 (군인 주일)
독서	주정자 루치아, 이재희 루시아	이국원 필리보네리, 김미현 보나
예물봉헌	요한반	루카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 일) 요한반 → (8 일) 루카반 → (15 일) 마태오반 → (22 일) 마르코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1 일-식사) 루카반 → (15 일-간식) 루카반
- 묵주기도성월 미사 전 묵주기도: (1 일) 루카반 → (8 일) 마르코반 → (15 일) 마태오반 → (22 일) 요한반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10 월 1 일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166 생명의 양식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10 월 8 일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212 너그러운 받으소서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64 이스라엘 들으라